제5강 습관, 수동적 종합, 수축, 응시

(1교시)

◆유기체 수준의 종합과 무의식 수준의 종합
※학습목표: 유기체 수준에서의 종합과 무의식 수준에서의 종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자.

▲수준들의 구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두 형식 사이의 구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수준들의 구별이다. 한 형식과 다른 형식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 조합되는 수준들이 있는 것이다.*」
-두 형식이란 베르그송의 A A A A와 흄의 AB AB AB A...이다.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즉자, 대자 등의 수준 구분이다.

▲베르그송과 흄의 한계
「*베르그송의 예나 흄의 예에 기댈 때, 우리는 감성적이고 지각적인 종합들의 수준에 머물게 된다. 감각된 성질은 요소적 자극들의 수축과 구별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각된 대상 그 자체는 두 가지 사태를 함축한다. 먼저 경우들의 수축이 있고, 이 수축을 통해 한 성질은 다른 성질 안에서 독해된다. 다른 한 편 어떤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 안에서 대상의 형식은 그 성질-적어도 어떤 지향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성질-과 짝을 맺는다.*」

▲유기체의 종합
「*그러나 구성적 수동성의 질서 안에서 지각적 종합들의 배후에는 어떤 유기체적 종합들이 자리한다. 이는 마치 감관들의 감성이 우리의 존재에 해당하는 어떤 원초적 감성에 의존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수축된 물, 흙, 빛, 공기다. 우리는 그것들을 식별하거나 표상하기 전에, 심지어 그것들을 느끼기 전에 이미 수축된 물, 흙, 빛, 공기다. 모든 유기체는 수축, 파지, 기대들이 어우러진 어떤 총합이다.*」
-여기서 수동성은 수동적 종합과 거의 같은 말이다.
-유기체 수준에서도 이미 종합들이 일어난다.

▲유기체의 위치
「*수용적이고 지각적인 요소들 안에서, 그리고 또한 내장內臟들 안에서 볼 때 유기체는 수축, 파지, 기대 안에 놓여 있다. 생명이 숨쉬는 이 원초적 감성의 수준에 주목해보라. 여기서는 체험된 현재가 이미 시간 안에서 어떤 과거와 미래를 구성하고 있다. 이 미래는 욕구 안에서 나타나며 이 욕구는 기대의 유기체적 형식에 해당한다. 반면 파지의 과거는 세포의 유전에서 나타난다.*」
-내장은 원초적 감성이다.
-유기체 차원에서 기대anticipation은 욕구besoin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과거는 retention인데 몸이 기억하고 있을 때 유전이라 한다.

▲유기체적 종합 이후

www.artnstudy.com

「게다가 이런 유기체적 종합들은 자신을 발판으로 하는 지각적 종합들과 조합되며, 그런 가운데 스스로 심리-유기체적 기억과 지성의 능동적 종합안에서 다시 자신을 펼쳐간다(본능과 학습). 따라서 수동적 종합과 관련하여 우리는 단지 반복의 형식들을 구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 수동적 종합들의 수준들, 이 수준들 사이의 조합들, 그리고 이 수준들과 능동적 종합들의 조합들을 구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한다.」

-여기서는 유기체와 지각을 말하면서 그 사이를 말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의 차원이 무의식이다.

-인간은 엄청난 누층이다. 현대철학자들이 근대철학자에게 갖는 불만은 이렇게 누층적이고 복잡한 인간을 정신으로 단순화시켜서 보았다는 점이다.

▲기호

*「**기호**들의 영역은 이 모든 것에 의해 형성된다. 이 풍부한 영역은 매 순간 다질성 heterogeneite을 봉인하고 행동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사실 각각의 수축, 각각의 수동적 종합은 하나의 기호를 구성하고 있고, 이 기호는 능동적인 종합들 안에서 해석되거나 펼쳐진다. 어떤 기호들을 통해 동물이 물의 현존을 '느낀다'면, 이 기호들은 그 목마른 유기체에 부족한 요소들과 유사하지 않다. 감각이나 지각이 반복에 참여하는 방식, 나아가 욕구와 유전, 학습과 본능, 지성과 기억이 반복의 성격을 지니는 방식은 언제나 네 가지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반복의 형식들의 조합, 이 조합들이 정교화 되는 수준들, 이 수준들의 연관성, 능동적 종합과 수동적 종합들의 상호 간섭 등이 그것이다.」*

-기호는 각(覺)을 일으키는 것이다. 즉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다.

-삶은 수수께끼로 가득 차있다. 이 수수께끼는 우리의 무의식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수동적 종합에서 이루어지는 기호다. 또한 의식, 능동적 주체가 풀어야 할 것이기도 하다.

www.artnstudy.com

(2교시)

◆응시와 수축의 의미
※학습목표: 어떻게 해서 우주가 응시와 수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습관과 심리학의 오류
「우리가 유기체에까지 확장시켜야 했던 이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흄은 그것이 정확히 습관의 문제임을 말했다. 그러나 흄이 분석하는 인과적 요소 연속뿐 아니라 베르그송이 예로 드는 시계의 타종들에 대한 이러한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우리는 실제로 습관의 신비를 매우 가깝게 느끼면서도 '습관적으로' 습관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이유는 아마 심리학의 가상들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심리학은 능동성을 물신으로 숭배하고 있다. 심리학은 내성에 대한 커다란 공포 때문에 오로지 움직이는 것만을 관찰하게 되었다. 심리학은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하는 가운데 습관들을 취득하게 되는지를 묻는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학습learning에 대한 모든 연구는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 다음과 같은 선행의 물음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습관을 취득하는 것은 행동하면서인가.....아니면 거꾸로 응시하면서인가? 심리학은 자아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정된 사실로 간주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던져야할 물음은 혹시 자아 자신이 어떤 응시가 아닌지, 혹은 자아의 본성이 어떤 응시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신체적 행동을 배우거나 형성할 수 있다면,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 형성할 수 있다면, 그런 학습과 형성은 응시와는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문제다.」
-의인적으로 말하면 화학요소도 일종의 습관이다. 또한 그렇게 우주는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리학자들은 내성의 방식, 인간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방식을 기피한다. 심리학자들이 볼 때, 습관은 우선 행동을 하고 그 결과로 취득된다. 이는 그 이전에 존재하는 수동적 종합의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다.
-들뢰즈는 이미 우리의 존재방식, 수동적 종합에서 습관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완과 습관의 수축
「습관은 반복에서 새로운 어떤 것, 곧 차이(인단 일반성으로 설정된 차이)를 <u>훔쳐낸다.</u> 습관의 본질은 수축에 있다. 이를 증명해주는 것은 언어이다. 가령 습관을 '수축한다[붙인다]'는 말이 있는데, 이 동사는 오직 어떤 habitus를 구성할 수 있는 보어가 있을 때만 사용된다. 물론 심장이 팽창할 때보다 수축할 때 더 많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또는 그보다 더한 습관은 아니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수축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즉 수축은 틱-탁.....유형의 계열 안에서 능동적인 두 요소 중에 하나를, 그 계열 안에서 대립하고 있는 두 시간 중의 하나를 지칭할 수 있다. 이때 다른 요소는 이완이나 팽창이 된다. 그러나 수축은 또한 응시하는 영혼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틱-탁들의 융합을 가리킨다. 이것은 수동적 종합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구성하는 것은 '이것'이 계속 뒤따라올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이며, 두 요소 중의 하나가 다른 요소 이후에 따라올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이다. 이때 우리의 경우가 영속하리라는 확신이 생긴다. 그러

www.artnstudy.com

므로 습관이 수축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반복의 한 요소를 형성하기 위해 다른 순간적 행위와 합쳐지는 순간적 행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응시하는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반복의 융합이다.」
-훔쳐낸다는 표현은 '옮겨 온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
-수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완도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들뢰즈가 말하는 것은 수축, 이완 경우들의 수축이다. 즉 A가 수축이고 B가 이완이라 하자. 이때 AB AB...에서의 AB의 수축이란 말이다.
-이런 반복은 AB AB...를 말한다.

▲습관과 주체
「심장, 근육, 신경, 세포 등에는 어떤 영혼이 있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영혼은 응시하는 영혼이며, 이 영혼의 모든 역할은 습관을 수축하는[붙이는] 데 있다. 이는 결코 미개하거나 신비스런 가설이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습관은 여기서 자신의 충만한 일반성을 드러낸다. 이 일반성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가지는 감각-운동의 습관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존재인 원초적 습관에 관련되어있고, 우리를 유기적으로 형성하는 수천의 수동적 종합들에 관련되어 있다.」
-영혼은 주체다. 그러나 능동적 의식의 주체가 아니다. 그 밑에 있는 무의식이나 유기체조차도 주체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들뢰즈는 애벌레주체larva subject라 부른다.
-수천의 수동적 종합은 애벌레 주체들이 하는 종합을 말한다.

▲응시와 습관
「우리가 습관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는 우리가 수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수축하게 되는 것은 응시를 통해서다. 이 둘은 동시적 사태다. 우리는 어떤 응시들이고, 우리는 어떤 상상들이다. 우리는 어떤 일반성들이고, 우리는 어떤 경쟁적 지망들이며, 우리는 어떤 만족들이다.」
-상상들은 흄의 표현이다.
-일반성들은 현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안에 과거와 미래가 얽혀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경쟁적 지망들은 욕구들이다.

▲응시, 수축, 실존
「왜냐하면 지망의 현상은 수축하는 응시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수축하는 응시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수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권리와 기대를 천명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응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오로지 응시하기 때문에 비로소 실존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수축하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가 있기 위해 먼저 있는 것을 응시하고 수축하며, 그런 가운데 실존한다.」

▲프로이트의 쾌락
「쾌락은 그 자체로 수축이나 긴장인가, 아니면 언제나 이완의 과정과 이어지는 것인가? 하지만 이것은 잘못 제기된 물음이다.쾌락의 요소들은 자극체들이 이완과 수축을 계속 힘차게

www.artnstudy.com

이어나갈 때 발견될 것이다. 하지만 쾌락은 왜 우리의 심리적인 삶 안에 있는 하나의 요소나 경우일 뿐 아니라 모든 경우 안에서 우리의 심리적인 삶을 지배하는 어떤 최고의 원리인가?」
-프로이트의 쾌락개념이다. 우리 정신에너지가 긴장할 때에 힘들기 때문에 이완해서 평형equilibrium을 이루려고 한다. 이것이 쾌락원리다. 그런데 프로이트에게 쾌락은 아프지 않은 것이다. 이는 니체가 보기에 전형적인 타락decadance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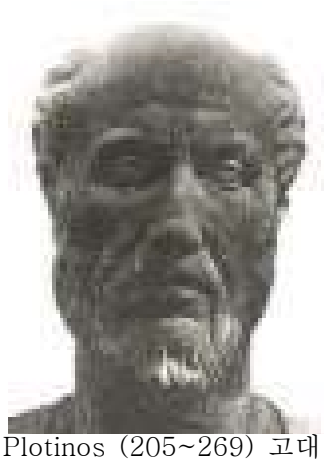
▲들뢰즈의 쾌락
「*이는 앞의 것과 전적으로 다른 종류의 물음이다. 쾌락이 원리라면, 이는 그것이 어떤 충만한 응시의 흥분이기 때문이다. 응시는 이완과 수축으로 이루어진 경우들을 자기 자신 안에서 수축할 때 충만해진다. 거기에는 수동적 종합의 지극한 행복이 있다. 응시를 통해 우리는 쾌락을 맛본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물을 응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응시가 가져다 준 쾌락(자기만족)을 통해 모두 나르키소스가 된다.*」
-쾌락은 이완으로만 된 것도 수축으로만 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완과 수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들을 수축하는 데에 있다.
-의문: 과연 수동적 종합이 지극한 행복일까? 수동적 종합의 수준에서 이미 무언가 잘못될 수도 있다.
-Narcissos는 자가성애라는 프롱트의 개념이다.

▲응시와 실존에 대한 시적 표현
「*우리는 응시에서 끌어내는 쾌락 때문에 나르키소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시하는 것을 통해 언제나 악타이온이 된다. 경험주의자가 아니라면 이런 행복한 표현을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다. 흙과 습기의 수축이 있고, 이것이 밀알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이 수축은 어떤 응시이며 이 응시가 가져오는 자기만족이다. 들판의 백합은 단지 자신의 실존을 통해 이미 어떤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 하늘, 여신과 신들의 영광을, 다시 말해서 자신이 수축하면서 응시하는 요소들의 영광을 응시하는 것이다.*」
-신은 기독교적 신이 아니라 스피노자식의 대자연이다.
-여신은 대지의 여신이다.

▲모든 것은 응시
「*어떤 유기체가 예외이겠는가? 모든 유기체는 반복의 요소와 경우들로 이루어져 있다. 응시되고 수축된 물, 질소, 탄소, 염소, 황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래서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습관들을 서로 얽고 조여매고 있다. 유기체들은 엔네아데스 3권의 "모든 것은 응시이다!"라는 숭고한 말과 더불어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물론 모든 것이 응시라고 말하는 것, 심지어 바위와 나무들, 동물과 인간들, 나아가 악타이온과 사슴, 나르키소스와 꽃, 심지어 우리의 행위와 욕구들조차 응시라고 말하는 것은 '반어'인지 모른다. 그러나 반어 또한 여전히 어떤 응시다. 플로티누스에 따르면,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고유한 이미지를 응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래를 향하여 스스로 뒤돌아설 때만 그 이미지를 규정하고 향유할 수 있다.*」
-엔네아데스Enneades는 네오플라톤주의자인 플로티누스가 쓴 책이다. 응시라는 단어가 플로티누스에게서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www.artnstudy.com

*참고자료


Plotinos (205~269) 고대 말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www.artnstudy.com